

##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 ① 평가 목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정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의 논술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과 EBS 교재에서 논술 제시문을 선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기억의 역할'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포함된 다양한 시각들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능력과 이 논지들을 창의적으로 연계하는 능력과 현대사회에서 기억이 갖는 양면성, 즉 디지털 시대 기억의 한계와 효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유연한 사고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주어진 정보를 수리적으로 모형화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리능력도 평가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제시문들의 논지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②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 [문제 1] — 이 문제에서 제시된 네 개의 제시문은 우리의 삶에서 '기억'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 주제로 묶일 수 있다. 이 문제는 '기억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네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서로 분별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시문에서 '기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각각의 역할이 제시문 간에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성찰과 결합하여 불가능에 대한 상상과 미래의 계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게 하는 토대(제시문 가), 2) 타 집단과 구분짓는 기제이자 정서적 위안의 원천(제시문 나), 3)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미래에 직면할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제시문 다), 4)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대상을 만들어 국민들을 통합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제시문 라)로 요약될 수 있는 지문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대조하여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 [문제 2] —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반대의 논지를 가진 두 글을 이용하여 한 제시문의 주장을 옹호 혹은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 제시문 (사)에서 학습의 기본은 반복적인 독서를 통한 경서의 전체적인 암송이라는 논지를 파악하고 2)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가 제시문 (사)의 논지를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약화시키는지 파악한 후 3) 해당 제시문의 논지를 사용하여 제시문 (사)의 주장을 옹호 혹은 비판하는 순서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응시자들은 제시문 (마)에서 주장하는 현대사회의 지식의 습득은 출판된 활자 중심의 "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또 그 지식의 양이 방대하여 암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중점으로 (사)에 나타난 암송중심의 학습법을 비판할 수 있고 (바)에 나타난 반복적 음악 청취를 통한 곡 진행과정의 기억이 음악과 마음의 연결점이 된다는 점을 들어 (사)에 나타난 반복과 암송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여전히 필수 불가결한 점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 [문제 3] — 이 문제의 목표는 주어진 정보를 수리적으로 모형화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즉, 3개의 선형 제약조건과 비음의 정수해라는 조건 하에서 목적함수(전체 판매 이익)를 최대화 하는 해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먼저 제시문에 주어진 상황을 올바르게 수리적으로 모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3개의 선형 제약식과 비음이라는 조건을 통하여 가능한 해의 영역을 선정하고 이 영역에서 목적함수를 최대화 하는 해를 결정하는 것이 문

제해결의 관건이다. 여기서 결정된 해가 정수해라는 조건에 맞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문제를 풀이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일차함수와 일차부등식의 기초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

##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고독한 성찰과 불안한 의심의 극장」,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2012.
- 제시문 (나):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문학 I』, 천재교과서, 2012.
- 제시문 (다): 「후천성 면역」, 권혁빈 외, 『생명 과학 I』, 교학사, 2011.  
「후천성 면역」, 박희승 외, 『생명 과학 I』, 교학사, 2011.
- 제시문 (라): 광노준 외, 『수능기출플러스 국어영역, 독서』, EBS, 2012.
- 제시문 (마): 「매체 언어 독서와 지식관의 변화」, 윤여탁 외, 『독서와 문법 I』, 미래엔, 2012.
- 제시문 (바): 「음악의 감상법과 음악의 의미」, 박영목 외, 『독서와 문법 I』, 천재교육, 2012.
- 제시문 (사): 안대희, 「1억 1만 3천 번의 독서」, 『독서와 문법 II』, 미래엔, 2012.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지학사) 교과서에 실린 도정일의 「고독한 성찰과 불안한 의심의 극장」의 일부이다. 이 글은 인간의 유한성을 기억과 성찰,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미래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이 가능한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과거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이에 대한 성찰이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요지이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성찰과 결합되었을 때 상상력의 근간이 되고 미래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 I』(천재교과서) 교과서에 실린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시골과 서울 번두리에서 살던 주인공이 서울 사대문안 학교에 전학 온 후 서울 아이들에 대해 느끼게 되는 이질감을 고향의 자연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 글에서 기억은 주인공을 서울 아이들과 분리하는 기제임과 동시에 주인공의 고독과 소외감을 달래주고 위안을 주는 원천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생명 과학 I』(권혁빈 외, 교학사)에 실린 후천성 면역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생명 과학 I』(박희승 외, 교학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이 글은 병원체에 대한 기억이 세포에 남아 이후 동일한 항원이 침입했을 때 신속하게 반응함으로써 후천성 면역 반응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라)는** 2009년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수능기출플러스 국어영역, 독서』(EBS)에 실린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영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집단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억 관리의 산물로 보고 있다. 즉 영웅의 이미지는 시대와 집단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전달된 기억의 재구성에 의해서 윤색된다. 이러한 영웅만들기는 위정자에 의해서 대중을 통치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Ⅱ(미래엔)』에 실린 「매체 언어 독서와 지식관의 변화」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독서법도 달라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현대의 매체환경에서는 글과 그림 그리고 음향적 정보들을 융합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할 뿐 아니라, 그 지식의 양이 방대해져서 기억하기가 어렵고 기술로 발달로 인하여 모든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불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Ⅱ(천재교육)』에 실린 이강숙의 「음악의 감상법과 음악의 의미」의 일부분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음악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음악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마음의 연결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악곡의 진행과정이 기억될 정도로 반복적인 청취가 필수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 문법 Ⅱ(미래엔)』에 실린 안대희의 「1억 1만 3천 번의 독서」의 일부분이다. 이 텍스트는 조선 중기 시인 '김득신의 독수기'에 관한 글로서, 옛 선비들이 왜 암송이라는 독서문화를 중요시했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글쓰이는 빠른 시간에 많은 내용을 읽는 방식보다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서 글의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 사고하는 암송이라는 읽기 방식이 갖는 가치를 강조한다. 암송은 선현들의 글에 아로새겨진 의미와 정신을 내면화하는 경건한 독서 행위로서, 무엇보다도 정전의 심도 있는 이해를 중요시 했던 당대의 시대 정신이 반영된 독서법이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는 기억이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가)에서 인간의 유한한 기억은 과거에 대한 성찰과 결합하여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상력의 토대이자 미래의 길잡이가 된다. 제시문 (나)에서 고향에 대한 기억은 화자를 타 집단과 구분 짓는 기제로 작동함과 동시에 화자가 타향살이에서 겪는 소외, 열등감, 고독을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제시문 (다)는 면역계가 과거에 경험한 항원을 기억해 두었다가 동일 항원이 침입했을 때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후천성 면역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제시문 (라)에서는, 특정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되거나 관리된 기억이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민을 통합하는 매개로 작동한다. 요컨대 기억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확장시켜 주거나 정서적 위안을 주기도 하고 미래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통합의 매개로 작동하기도 한다. [566자]

[문제 2]

제시문 (사)의 텍스트 암송을 통한 학습법은 제시문 (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우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향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읽기 능력이 필요하므로 단순 텍스트 암송만으로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대의 지식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디지털화된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므로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지식 습득의 방식으로서 암송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시문 (바)에 따르면, 반복적 청취를 통해 '곡 진행 과정'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복에 의한 기억은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같은 맥락에서, 반복적 독서를 통한 텍스트의 암송은 디지털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식 습득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가변적이고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취사선택해서 편집하고 사용하는 능력 못지 않게 해당 분야의 지식을 반복과 기억을 통해 이해하고 체화하는 학습법이 중요하다. [568자]

[문제 3]

다음과 같이 변수를 정의하자.

$X_A$ : 차종 A의 일일 생산 대수

$X_B$ : 차종 B의 일일 생산 대수

$Y$ : 전체 판매 이익

먼저 전체 판매 이익의 최대화와 현재의 생산능력은 위에 정의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 = 160X_A + 400X_B \text{ 를 최대화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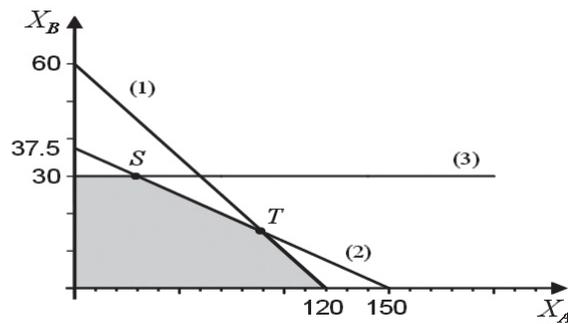
$$\text{제약조건: } 2.5X_A + 5X_B \leq 300 - (1) \leftarrow \text{프레스 공정의 제약}$$

$$0.6X_A + 2.4X_B \leq 90 - (2) \leftarrow \text{조립 공정의 제약}$$

$$X_B \leq 30 - (3) \leftarrow \text{고성능 GPS 조달의 제약}$$

$$X_A \geq 0, X_B \geq 0. - (4), (5)$$

식 (1)은  $X_B \leq -0.5X_A + 60$ , 식 (2)는  $X_B \leq -0.25X_A + 37.5$ 로 표현되므로 가능한 해  $(X_A, X_B)$ 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최대화시키려는 목적함수  $Y = 160X_A + 400X_B$ 는  $X_B = -0.4X_A + (1/400)Y$ 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함수의 기울기  $-0.4$ 는 식 (1)의 기울기인  $-0.5$ 와 식 (2)의 기울기인  $-0.25$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점 T를 지날 때 목적함수의 절편  $(1/400)Y$ , 즉  $Y$ 는 최대가 된다.

점 T의 좌표는 식 (1)와 (2)의 교점이기 때문에  $-0.5X_A + 60 = -0.25X_A + 37.5$ 를 만족하고, 이로부터 점 T의 좌표는  $(90, 15)$ 가 된다. 따라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은 차종 A는 90대, B는 15대를 생산하는 것이고, 이때 판매 이익은 20,400(만원), 즉 2억 4백만원이다.

고성능 GPS의 가격이 변화하여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이 변할 수 있다면,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을  $b$ 라 할 때 목적함수는  $Y = 160X_A + bX_B$ 로 나타낼 수 있다. 위에서 구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이 유지되려면 목적함수가 점 T를 지날 때  $X_B$  축 절편이 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적함수의 기울기인  $-160/b$ 가 식 (1)과 (2)의 기울기 사이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0.5 \leq \frac{-160}{b} \leq -0.25$$

를 만족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320 \leq b \leq 640$ 을 얻을 수 있다. (등호는 없어도 무방함) 따라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의 범위는 320만원과 640만원 사이이다.

## 채점 기준

[문제 1] — 40점 만점

###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 2. 내용적 측면(40점)

1) '기억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37점): 8~37점

(가): 기억은 성찰과 결합하여 상상력의 토대이자 미래의 길잡이가 되어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게 한다.

(나): 고향에 대한 기억은 주인공을 타 집단과 구분 짓는 기제임과 동시에 주인공이 타향살이에서 겪는 소외, 열등감, 고독 등을 달래주는 원천이다.

(다): 향원에 대한 기억이 향후 동일한 향원에 대한 대처를 신속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라): 시간적, 공간적 맥락 속에서 특정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되거나 관리된 기억은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내 국민을 통합하는 매개로 작동한다.

- 네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모두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30~37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22~29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15~21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8~14점 부여

※ 단, 참신한 분류법으로 지문의 차이를 묶어 서술한 경우, +3점을 부여한다.

2) 네 개의 제시문의 특징을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3점): 0~3점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1점),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2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논지의 차이점 파악 (37점): 8~37점	4개를 정확히 제시한 경우	30~37점
		3개를 제시한 경우	22~29점
		2개를 제시한 경우	15~21점
		1개만 제시한 경우	8~14점
		참신한 분류	최대 3점 추가
	② 논리적 구성(3점): 0~3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점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충실		2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사)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한다(10점): 2~10점 부여

제시문 (사)는 경서와 문장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학습법은 암송이라고 하면서 그 경서의 암송을 위하여서는 반복적인 독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제시문 (사)에 나타난 학습법으로 반복적인 독서나 암송을 들지 못한 경우, 2점 부여
- 제시문 (사)에 나타난 학습법으로 반복적인 독서만을 제시한 경우, 5점 부여
- 제시문 (사)에 제시된 반복적인 독서가 궁극적으로 경서 전체에 대한 암송을 위한 것임을 파악하고 반복적인 독서가 아니라 암송을 제시된 학습법으로 파악한 경우, 10점 부여

2) 제시문 (사)를 제시문 (마)와 (바)를 이용하여 적절히 비판하고 옹호하였는지를 평가한다(30점): 5~30점

- ① 제시문 (마) 평가: 제시문 (마)의 주요 논지와 그것들을 이용한 제시문 (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i)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대사회의 정보들은 글, 그림 그리고 음향적 정보들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 암송을 넘어선 융합적 읽기가 필요하다.
  - ii) 현대의 지식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시대, 장소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지식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록한 책을 단순 암송 하는 것은 지식 습득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 iii) 지식의 양이 방대하여 모든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iv)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모든 지식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 지식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 ② 제시문 (바) 평가: 제시문 (바)에 나타난 제시문 (사)의 효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i) 음악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이 음악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은 반복청취이다.
  - ii) 반복적 청취를 통해 '곡 진행 과정'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억은 음악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 iii) 마찬가지로 반복적 독서를 통한 텍스트의 암송은 디지털 현대 사회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방법이다.

- 제시문 (마)를 제시문 (사)의 한계로 그리고 제시문 (바)를 제시문 (사)에 대한 효용으로 연결하지 못한 경우, 2~5점 부여
-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은 옳았으나 그 2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모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6~10점 부여
-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은 옳았으나 2개의 제시문 중 하나의 논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비판 혹은 옹호에 사용하였을 경우, 11~15점 부여
-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도 옳고 2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모두 제대로 파악하였을 경우, 16~25점 부여
- 제시문의 선택, 각 제시문의 논지의 파악이 옳고 각 제시문의 논지와 제시문 (사)에 대한 한계와 효용에 대한 연결이 우수한 경우, 26~30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내용적 측면 (40점)	① (사)의 논지 파악(10점): 2~10점	제시문 (사)에 나타난 학습법이 반복적인 독서를 통한 경서의 암송임을 파악한 경우	8~10점
		학습법으로 반복적인 독서만을 제시한 경우	5~7점
		제시문 (사)에서 학습법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2~4점
	② (마)와 (바)의 논지를 이용하여 (사)의 논지를 평가(30점): 2~30점	제시문의 선택, 각 제시문의 논지의 파악이 옳고 각 제시문의 논지와 제시문(사)에 대한 한계와 효용에 대한 연결이 우수한 경우	26~30점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도 옳고 2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모두 제대로 파악하였을 경우	16~25점
		2개의 제시문 중 하나의 논지만 제대로 평가하고 비판 혹은 옹호에 사용하였을 경우	11~15점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은 옳았으나 2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모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6~10점
		제시문 (마)를 제시문 (사)의 한계로 그리고 제시문 (바)를 제시문 (사)에 대한 효용으로 연결하지 못한 경우	2~5점

**1. 점수 부여(20점 만점)**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①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5개의 제약조건 식(비음 조건 포함)과 최대화하려는 목적함수인 전체 판매 이익  $Y$ 를 표현한다.(8점)
- ② 5개의 제약조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구한다.(2점)
- ③ 단계 ②에서 구한 영역에서 목적함수인 전체 판매 이익  $Y$ 를 최대화하는 해를 구하고, 이 해가 정수해 조건을 만족 하는지 판단한다. (5점)
- ④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이 변할 경우 이를 미지수  $b$ 로 놓고 목적함수를 표현한 후,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의 범위를 계산한다.(5점)

**2. 감점**

- ① 단계 ①에서, 5개의 제약조건 식과 목적함수인 전체 판매 이익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각각 1~2점 감점할 수 있다.(최대 8점까지 감점 가능)
- ② 단계 ②에서, 제약조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잘못 산출한 경우 1~2점 감점할 수 있다.
- ③ 단계 ③에서, 목적함수인 전체 판매 이익  $Y$ 를 최대화하는 해를 잘못 산출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1~5점 감점할 수 있다.
- ④ 단계 ④에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의 범위를 잘못 계산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1~5점 감점할 수 있다.